

보도시점 2024.11.5.(화) 배포시점 배포 2024.11.5.(화)

#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.

- 법률자문 결과 '위원회 심의·의결 대상'에 해당 -
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'방통위')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이하 'TBS')가 지난 10월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하였습니다.

TBS는 '공익법인등' (구, 지정기부금단체)으로 추천·지정받기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.

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('24.8.28 신청)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, 본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하여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,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·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.

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“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,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” 고 밝혔습니다.

담당 부서	방송정책국	책임자	과 장	김영주 (02-2110-1420)
	지상파방송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지권 (02-2110-1421)